

개방화시대 석유산업의 경쟁력강화 방안



柳在英

〈호남정유 사업기획팀 대리〉

자유화, 개방화, 환경규제 강화, 세계화, 무한 경쟁, 국경없는 경쟁 등등.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이후 구조적인 전환기를 맞고 있는 세계경제의 새로운 질서를 대변하는 말들이다. 새로운 세계 경제질서에 따라 정부는 경제 개혁을 단행 각종 정부규제완화 또는 자유화와 함께 대외 개방화를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국내·외적 경제환경의 변화는 국내 석유산업 태동 이후 일찌기 경험해 보지 못한 것으로서 향후 국내 석유산업의 성장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정부정책 및 기업경영 전략의 수립 여부가 자유화, 개방화 시대를 맞은 미래 석유산업의 대외 경쟁력 확보, 나아가서는 생존여부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석유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국내외 환경의 변화가 석유산업에 던지는 도전은 어떤 것이며 주어진 도전을 어떻게 능동적으로

로 대처·활용하여 기업경쟁력 강화 기회로 전환시킬 것인가, 이를 위해 정부 및 기업이 취할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몇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석유업계가 직면한 환경변화 및 경쟁력 강화분야는 환경규제강화 및 석유품질 및 수요고급화에 따른 대규모 신규 고도화시설 도입이다. 현재 국내석유시장 수요구조는 급격히 경질화 저유황화 되는 추세에 있으며 제품규격도 휘발유에 합산소함유 의무화, 0.05 wt% sulfur 경유도입, 0.5wt% sulfur B-C유 도입등 점차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국내 수요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도화 시설의 설치는 필연적인 것이 되었으며 현재 각 정유사는 이미 완공하였거나, '9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고도화 시설투자에 대한 자금소요는 향후 3~4년내에 정유사 총계 약 4조원에 달해 정유사에 따라서는 제 2의 창

업과도 맞먹는 대규모 투자이나 투자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사업성의 불확실로 인해 투자자체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의 주에너지원인 석유제품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사회적 책임과 정제시설 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을 고려해보면 고도화 시설 투자는 피할수 없는 투자시기만의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석유정제시설의 고도화 비율은 日本과 美國의 20~40%에 비하여 6%에 불과해 생산제품 구조가 처리원유의 성상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시설유연성 및 경쟁력이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97년까지 계획된 고도화시설을 완비할 경우 고도화비율은 약 20%에 이르러 시설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환경규제강화 및 석유수요 고급화 추세는 오히려 고도화 시설 투자를 촉진시켜 향후 대외 석유시장 개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시설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정유업자가 상기 투자계획을 무리없이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정부층에서도 막대한 투자비에 대한 석유사업 기금 융자방안 등을 통한 적기 완공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두번째 예상되는 석유산업 환경변화는 제한된 국내 석유시장이 석유정제업이나 유통시장을 대상으로 대외개방되는 경우이며, 이때 국내석유산업은 커다란 변화를 겪을 수 있다. 현재 정유 5사의 총정제능력은 상업증류시설 기준으로 1,675천BPSD이며, 향후 97년까지 추가로 826천BPSD를 증설하여 총

2,501천BPSD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97년 내수수요 2,062천BPSD보다 약 530천BPSD가 많은 물량으로 동절기 보다는 하절기에 상당한 양의 시설여유가 예상된다. 더구나 각 정유사가 이미 가동 중이거나 계획·추진하고 있는 중질유분해 시설을 고려하면 시설여유용량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유사간의 점유율 신장을 위한 시장확대 경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석유정제업 대외개방, 석유수입업 자유화 등으로 유통시장이 개방될 경우 대·내외 석유제품의 추가 유입으로 국내 정유업자의 시설과잉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이윤이 높은 특정제품이 집중적으로 외국 자원에 의해 수입·판매되어 국내시장을 잠식할 경우 연산 제품생산이라는 석유정제업의 특성상 시설 유향화로 인해 정유업체가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입·판매물량의 자유로운 진퇴로 인해 정유업자의 생산 및 수급계획에도 불안정을 초래할 것이다. 정유업자도 시장점유율은 빼앗기지 않기 위해 석유제품을 적정가격보다 낮게 공급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고도화시설을 이 낮은 석유정제업자는 높은 생산원가로 인해 시장확보 경쟁에서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가격 경쟁력을 상실할 수도 있다. 이와같이 석유정제업 및 유통분야에서의 대외개방으로 인한 경제적, 수입안정적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석유산업의 다변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북한 두만강유역 개발에 석유정제업 참여 또는 제품판매기지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여 향후 남북통일

에 대비하는 것 등이 그 한 예라 하겠다. 국내 석유산업의 소비자 정제주의 원칙상 석유산업이 수출산업으로 성장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겠으나, 대외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잉여제품 소화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제고에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석유산업 경쟁력 강화전략은 정제시설 분야 뿐만 아니라 정제외적인 분야 즉, 물류 및 대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석유산업의 자유화는 개방과 경쟁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에 특정분야에서만 경쟁력 확보만으로는 항구적인 경쟁체질을 얻을 수 없다. 정제, 수송, 저장등의 물류, 유통, 고객서비스 측면에서의 총체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미 완공, 가동중인 경인송유관을 비롯하여 남북송유관 건설을 조속히 완공하여 현재 수송능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는 항만시설, 철도, 도로 등의 유류수송 분담률을 덜고 수송체계를 합리화시키고 동시에 주요 소비 지역에 대한 석유저장 시설의 확충도 완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석유판매에 있어서도 대고객 서비스 및 기업이미지 향상을 위해 선진판매 기법을 과감히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화시대의 외부환경변화에 적극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체의 질 향상에 경영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과거와 같이 국내 고정시장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단순한 경쟁적 생산시설 규모확대를 지양하고, 외국기업에 대항하기 위한 원유구입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각종비용 절감 및 경영의 노후우를 축적함과 동시에 수익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불합리한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석유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 기업체에서 경영혁신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앞으로의 석유산업은 과거와 같이 적정이익률 확보라는 정부규제 및 보호틀을 떠나 정유사의 이익률이 시설 경쟁력 및 경영성과에 따라 좌우되는 자유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경영 기법과 기술을 앞세운 외국자본과도 경쟁해야 하는 개방화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석유산업의 도전과 경쟁력 확보 대책은 장기적이고 원론적인 지적에 불과하다. 실제 정유업체가 시설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규모 중질유분해시설 설치, 수송, 저장 등의 물류시스템 정비, 주유소 등의 유통망 확충 등을 실행하는 데에는 적절한 투자재원의 확보, 국내 석유제도의 재 정비 등 많은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정유업체가 상시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제적 석유회사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신규 투자재원의 지원방안 수립, 석유산업의 개방화·자유화 속도조절과 적절한 석유산업 규제 및 지원강도 등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정부와 기업이 적절한 대응조치를 갖고 있을 때 개방화시대의 새로운 환경변화는 석유산업에 커다란 위기가 될 수도 있으나, 새로운 도전에 적극 대처하고 준비하여 이를 현명하게 극복한다면 오히려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 기회도 될 것이다. ♣